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7년도 표어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람이여

(시편 62:1-12)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은 권능과 사랑을
함께 가지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절망이나 위기에 빠질 때 곧 멸망하고 말 것 같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원수들로 포위되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편 62편은 위험에 처했으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을 놀랍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과 다윗의 원수(1-4절)

1-4절은 하나님과 시인, 그리고 시인의 원수가 서로 대응합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그를 집어 던지려고 하지만 그는 반석이 시요 구원과 요새가 되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ak, 즉 하나님만, 그만(only 또는 alone)이라는 단어가 8절에서 5번, 그리고 9절에서 1번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시편 주석가 중 가장 유명한 Alexander Macharen은 ‘only’라는 이 단어가 시인의 갈등의 기록이고 승리의 기념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관념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적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TV가 우리를 오락문화로 이끌어 감으로 설교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TV에서 방영되는 예배 실황에서는 기도가 배제 되고, 생각 없는 노래가 찬양으로 대체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양강좌나 흥미위주의 강단이 말씀을 대신합니다. 신앙의 위기, 하나님 믿음의 결여, 말씀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실로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며 요새이십니다. 반석에 서 있는 다윗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것이다(5-8절)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가변적이고 연약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자신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독려했습니다.

5-6절은 1-2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믿으라는 필연성을 반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약간의 변형이 있는 것은 첫 번째 부분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았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도록 자신을 독려했고 그것을 계속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또한 2-6절에서 하나님을 묘사한 것을 7절에서 반복함으로써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고난에 시달린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점에서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조용히 하나님만 앙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련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였

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섬기던 임금이나, 거느리던 신하, 심지어는 자식으로 부터 박해와 배신을 당했을 때도 결코 비열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요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위협적인 타격에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요동하지 않는 침착하고 담대한, 그리고 평온한 그의 신앙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3. 잠잠한 신뢰의 근거(9-10)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사람으로부터 희망이 없다는 것이 본 시가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 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노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자기의 반석이요 구원이며 산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신다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 외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신분의 귀천을 막론

하고 인생이란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 가벼운 것들이어서 하나 같이 의뢰할 만한 대상이 못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재력이나 권력을 대단하게 여기지만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마음 붙일 바가 못 되고 믿을 바가 못 됩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온갖 걱정을 물 쏘듯,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만 잠잠히 신뢰하고 평온을 유지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4. 하나님에 관한 두 가지 교훈

마지막 두 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관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두 번 반복하여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했으나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에 관해 두 가지 큰일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권능은 있고 사랑이 없다면 인간을 구원하실 마음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또 사랑은 있으나 권능이 없다면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나 그렇게 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능과 사랑을 함께 가지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로 오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시련이 자신의 과오 때문이라면 참회해야 하고,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묵종해야 하며, 타인 때문이라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앙망하며 침착하게 그를 신뢰하므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제7기 단기선교단 파송

예루살렘에 교회 설립 한다

그 동안 모든 성도들이 큰 관심을 갖고 기도로 함께 준비해 온 제7기 단기선교단(단장: 노문환 장로)이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파송을 받는다. 제7기 단기선교단은 이스라엘로 파송받아 7월30일(월)부터 8월9일(목)까지 11일간 2006년에 우리교회에서 현지에 파송한 선교사들을 도와 8월5일 주일에는 예루살렘에 순례자의 집(The Pilgrims' House)이라는 교회 창립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등 다양한 선교활동을 펼치게 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지봉사활동을 떠난 성도들

이 탈레반에 의해 납치 살해된 이때에 더욱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선교활동을 펼칠 제7기 단기선교팀을 위해 모든 성도들의 절실한 기도가 요청된다.

제7기 단기선교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지도: 한상은 목사 단장: 노문환 장로
 정동호 김규태 고아라 권오영 김성국 김성신
 김세원 김순덕 김영옥 김은비 김진희 노창훈
 박선미 박준희 신동빈 오주명 이승준 이인영
 이화용 임현우 전용천 조광희 홍하연 이상 25명

주일 국가자격시험 시행중지 법제화 세미나

8월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이종윤 목사 주제 발표

우리나라는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주일에 실시하고 있다. 이는 만물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라 하신 성경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안이다.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이를 위해 쉽 없이 기도해오던 개혁교회들은 마침내 세미나를 열어 주일 국가자격시험 시행중지를 법제화하기 위해 나선다.

한기총과 국회인권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우리교회 이종윤 목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성수주일을 위해 반드시 관철해야 할 주제를 다루는 이번 세미나는 8월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며 입장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 한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8월 한 달간 다락방 방학

-개인 경건의 기회로-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적이 있었던 것처럼 일상적 생활을 잠시 떠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충전의 기회를 갖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계속되는 불별더위로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8월 한 달간 우리교회는 다락방 모임을 잠시 쉰다. 성도들은 이 한 달 동안을 영적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가

족과 함께 기도와 말씀을 읽는 시간을 통해 가정의 영적 성장과 자녀교육의 좋은 시간으로 삼기 바란다.

이 기간 동안 다락방장들은 성도들의 성수주일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고 전화심방을 통해 다락방 가족들을 돌보며 보고해야 한다.

제5회 대학부 성경통독 수련회

7월30일(월) - 8월10일(금) 오전 10시 701호실에서

대학부(부장: 노문환 장로)는 가을 캠퍼스로 돌아가기 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무장하자는 취지에서 2004년 8월 제1회 성경통독수련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성경통독수련회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07년 1월에는 본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성경일전독대장정에 대학부가 앞장서서 참여하기 위해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1주일 동안 제4회 성경통

독수련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금년 여름방학에는 이스라엘 단기선교팀이 출국하는 7월 30일(월)에 시작하여 8월10일(금)까지 2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총 10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701호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할 뿐만 아니라 단기선교팀을 위한 기도회를 함께 갖게 된다. 대학부원들과 많은 성도들의 동참을 기대한다.

금주 여름수련회

· 에바다부: 7월30일(월)-8월1일(수) 청평

· 디아스포라부: 8월2일(목)-4일(토)
서울교회 · 성우리조트

금주에도 여름수련회가 계속돼 에바다부와 디아스포라부가 여름수련회를 갖는다.

에바다부(부장: 최용걸 집사) 여름수련회가 7월 30일(월)부터 8월1일(수)까지 청평에서 '복음에 빛진 자'를 주제로 이종윤 목사와 임규현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열린다. 또한 디아스포라(부장: 양춘경 집사) 여름수련회는 8월2일(목)-4일(토)까지 '무지개 약속'을 주제로 이종윤 목사 윤영국 목사 박광일 전도사를 강사로 모시고 서울교회와 성우리조트에서 열린다. 성도들의 기도 동참을 부탁드린다.

7월 2차 성경통독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7월 2차 성경통독 시상을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한다. 지난 달 까지 매일 1회 성경통독 시상을 하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한 번에 몰려 진행에 어려움이 많아 교구위원회의 건의로 금월부터 12월까지 한 시적으로 매일 2회 성경통독 시상한다. 다음 달(8월)부터는 매일 2, 4째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실시한다.

7월 중에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2독 이상은 1월부터 누진된 숫자이다.

-필사-

(7교구)이영숙 권사

-2독-

(1교구)박순자 권사 (7교구)정정희 권사

(9교구)이남성 집사 (대학부)최진경

-1독-

(1교구)백옥금 집사 우종암 성도 이선경 집사 한선현 장로

(2교구)김영빈 집사 배병이 권사

(3교구)박우옥 권사 배재송 집사 이찬호 집사 임분도 권사

(5교구)장호정 집사

(7교구)김숙행 권사 손명근 장로 함은희 권사

(9교구)김은영 성도 김태삼 집사 오정수 장로 전용순 권사 조숙자 집사 최정자 권사

(10교구)정경자 권사 홍재식 권사

(11교구)김남순 권사 김양숙 권사

(12교구)김유경 집사 홍복산 성도

(13교구)곽미숙 집사 김신영 집사 김은태 집사

(14교구)박희실 집사 정명숙 성도 최낙준 집사 최죽희 권사

(고등부)서한상

-이상 37명-

만민에게 전도 - 7기 단기선교단 파송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 지속적인 기도 요청합니다 -

살롬!
한국은 장마 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곳은 계속 더운 날씨입니다.

이스라엘은 내년이면 건국 60주년입니다. 이천년 동안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를 회복한 것은 세계사에서 볼 수 없는 기적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또한 우리도 이스라엘이 국가를 회생시킨 것을 눈으로 보고 함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음도 특별한 일입니다.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인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왔으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롬11장).

그러나 이천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방나라들로부터 편견과 멸시를 당해왔습니다. 그들의 상처는 너무나 크고 아픕니다.

나치의 대학살로 6백만 유대인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한 비극은 잊지를 못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거부반응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야만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40:1) 그리하여 예수가 그들의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 마음 발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복음의 땅 끝이 된 땅으로 우리 청년들이 갑니다. 마음을 열고 뚫처럼 고백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 1:16) 예수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날



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에서 L선교사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1. 이스라엘에 '복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2. 모든 활동, 특히 선교지 연구를 위한 준비와 활동이 잘 진행되도록
3. 참가한 모든 대원들이 '더 큰 선교의 비전을 발견' 할 수 있도록
4. 현지 선교사들이 더욱 힘 있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5. 모든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북한 핵 및 한·미 연합사 해체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

북한 핵 및 한·미 연합사 해체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본부는 한기총과 함께 범국민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가칭 2.13합의는 북한이 보유한 기존의 핵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일 뿐인데 마치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을 완전히 폐기할 것처럼 국민을 오도함으로써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을 심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일련의 사태는 곧 북한이 핵을 앞세워 한반도에 확실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며, 지난 60여 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근본적으로 무너져 안보적 위기를 염려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서명추진본부는 이를 막기 위하여 '북한 핵보유 반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5월31일 현재 400여 만 명의 서명을 확보하였고 한기총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한국교회가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모든 성도들의 절실한 기도가 요청되는 이때 서울 교회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요청한다.

2007 여름수련회 후기

신혼가정부 1년...



강창구 · 김주연
(신혼가정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룬 적도 있었고, 아주 달콤한 꿈같은 결혼생활을 상상하며, 나는 지금부터 1년 전 결혼을 하였다. 그러나 결혼식 날 저녁부터 우리 부부의 트러블은 시작되고 말았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짜지어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결혼 첫 날부터 우리 둘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고 나니 '하나님 너무해요'라는 기도가 나올 정도였다. 어쨌든, 티격태격 하면서도 신혼 여행을 갖다오자마자 '신혼가정부'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신혼가정부에서의 학습은 부부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실제 결혼생활에 적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부부간의 대화법'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부부사이의 다양한 문제를 발표하고, 또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매 주 가졌다. 사실 처음에는 너무 상투적인 내용만 하는 것 같고, 계속 비슷한 문제를 다루는 것 같아서 식상한 느낌도 들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했던가, 학습한 것들이 실생활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 부부 사이에 차츰 적용되기 시작했다.

부부사이의 문제는 크게 보면 몇 가지에 국한된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인 부부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아니 알고는 있으나 실제로 적용하거나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 즉 해결방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신혼부부 사이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 인해 트러블이 생겨난다. 그래서 우리는 '밤 11시 이후 TV시청 안하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 읽기', '다툼으로 서로 화가 났더라도 그날 안에 반드시 풀기', '저녁식사 후 함께 산책하기' 등 사소하지만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우리만의 규칙을 만들어 적용했다. 그렇게 시작하니 5~6개월 지난 지금 우리는 꽤나 사이 좋은 부부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결혼과 함께 시작한 신혼가정부에서의 1년은 우리부부에게 값지고 믿음의 반석을 굳건히 한 시간이었고 지금도 우리가정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짜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6)

만민에게 전도 - 2007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 대학부 여름수련회



■ 중등부 여름수련회



■ 교육1국 여름성경학교



특별찬양

-그레이스핸드벨콰이어-

이번 주는 우리교회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지휘: 오선혜 집사)가 찬양예배 특별순서를 담당한다. 주일 2부 예배에서 헌금송을 연주하는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의 소리는 가히 천상의 음악과 같은 음향을 가지고 예배의 경건성을 지켜 왔다.

한 사람이 한 개의 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화합하여 음악을 만드는 것은 단지 소리로서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의 마음으로 음악을 이루어 낸다.

오늘은 차임 연주, 독창과 오르간과 핸드벨연주로 You are My All in All 곡 외 4곡을 연주 한다.

등정

■ 이종윤 목사는 8월2일(목) 국회인권포럼 · 한기총 공동주최 '주일국가시험 문제 대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다.

■ 교역자 하기휴가: 이태훈 목사(7.30 - 8.4)
대행-윤영국 목사(011-9653-3751)
정수길 목사(7.30 - 8.4)
대행-장석남 목사(010-7273-6352)

■ 개업: 9교구 심상필 권사(주) 그루터기 8월3일(금) 개업
T. 334-0044 011-738-8803
13교구 김재숙 집사, 김희숙 집사 '휴스존' (인력파견)
T. 773-1919

■ 이사: 9교구 이견우, 전효진 성도
성북구 하월곡4동 두산위브아파트 117동 1901호

■ 주간식당봉사: 모세선교회(7.29) 도르가 전도회(8.5)

■ 금주의 식사: 이남북 권사 김혜연 집사 박은영 집사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예배 및 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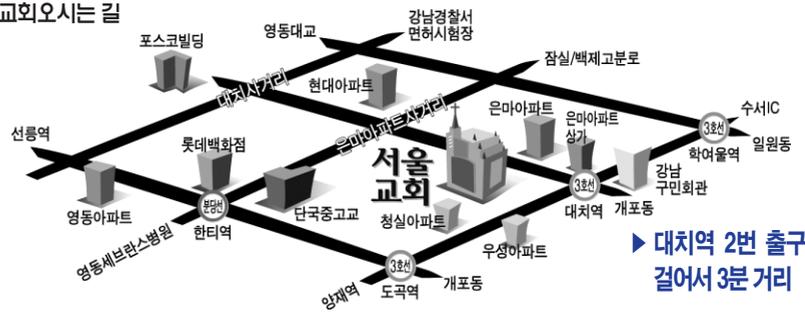
구분	시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30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2. 성경 일천독 대장정과 100만인 전도운동 성취되도록
3. 무더위에 온 교회 성도들 영 · 육간에 건강하도록
4.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국가, 사회 되도록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